



국립나주박물관 '달빛 고분 산책'

‘토요일! 토요일엔 박물관.’

광주·전남 지역 주요 박물관이 토요일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들을 찾아가고 있다. 다양한 유물들을 관람하고 전통 문화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박물관으로 떠나보자.

국립광주박물관은 12월5일까지 매달 지정된 토요일에 박물관 교육관에서 ‘토요일! 토요일엔 박물관-토요일엔 박물관으로 Go古(고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 관람과 체험학습이 연계돼 구성됐다.

‘조선청화, 푸른빛에 물들다’전이 열리는 3월에는 ‘초벌 기물에 문양(그림) 그리기’ ‘청화 안료를 사용해 그림 그리기’ 등 체험학습이 진행되고, 4~5월에는 ‘비단의 고향, 광주 신창동의 직물문화’와 연계해 ‘누에 고치에서 실 빼기’ ‘미니 베틀에서 천 짜기’ 등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6~8월엔 ‘아시아의 사유’전과 연계한 ‘아시아 이미지를 다색 판화로 표현하기’ ‘아시아의 다양한 미술에 대한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가 진행되고, 9~12월에는 ‘남도문화전 VI - 담양’전과 연계해 ‘대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물품 탐색’ ‘쓰임이 많은 대나무를 활용한 체험’ 등이 진행된다.

시간은 오후 3~5시로 안내, 이론 학습, 체험학습 순으로 열리고 있다. 대상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가족(15가족 내외)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570-7053.

광주시립민속박물관도 어린이들

광주·전남 박물관들 토요일 프로그램 다채



국립광주박물관 '청화 안료를 사용해 그림 그리기'

국립광주박물관 - 전시·체험학습 ‘박물관 Go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 전통 배우기 토요일문화교실

국립나주박물관 - 1박2일 달빛기행·뮤지엄스테이

이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행복한 토요일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에 민속공예교실, 우리 나무 바로 알기, 민속생태마을 탐방 등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민속공예교실은 각 절기의 다양한 풍속과 관련 있는 일상용품을 만들

고, 민속문화적 의미를 탐색해 보는 과정이다. 전통문양 필통과 웅기 화분, 양(羊) 등을 만드는 다양한 공예 체험이 진행된다. 우리 나무 바로 알기는 박물관 주위에 있는 나무와 야생화의 생태와 환경을 탐구하는 과정으로, 느티나무와 소나무, 백일홍 등 다양한 고유 수종과 꽃, 곤충의 생태를 살핀다. 민속생태마을 탐방에서는 전통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찾아 옛 사람들의 삶을 배워본다. 올해는 현지 강사와 함께 봄과 가을에 각각 화순 수만리 들국화마을과 담양 무월마을을 탐방한 후 전통 음식과 농사 등을 체험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부모를 동반한 초등학교생이며, 참가비는 무료(재료비 별도)다. 홈페이지 참조(http://gfm.gwangju.go.kr). 문의 062-613-5337.

국립나주박물관은 4월부터 11월까지 박물관에서 캠핑하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1박2일 달빛 역사여행’과 ‘1박2일 뮤지엄 스테이’를 진행한다.

‘1박2일 달빛 역사여행’은 가족과 함께 1박2일 동안 박물관에 머물며 영산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박물관 야외 체험장에 마련된 카라반(캠핑카)이나 야영 데크(텐트)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가족대행 민속놀이, 가족별 요리를 뽐낼 수 있는 ‘우리 집 소문난 밥상’ 등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늦은 밤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조족등(照足燈)을 밝히고 떠나는 ‘달빛 고분(반남고분군) 산책’, 숲 해설가와 함께 반남고분군과 자미산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어린이(초등학교 1학년 이상)가 포함된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12월 첫째, 셋째 주 주말에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물 중 재미있는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우리 가족 박물관 나들이’가 진행된다. 홈페이지(http://naju.museum.go.kr) 참조. 문의 061-330-78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정월대보름 전통놀이 공연 보고 체험하세요

7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정월대보름(5일)을 맞아 무등산 자락에서 다양한 전통놀이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7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열리는 토요상설공연으로 전통연희놀이연구소(대표 정재일)의 ‘대보름, 연희한마당’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풍물패가 관객들과 함께 마당밧기를 비롯해 ▲고전제(소망 솟대

에 적힌 소원을 빌고 대북 치기) ▲선반판굿(설장구와 길놀이를 하며 열두발 상모 놀음 체험) ▲말뚝이춤(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지정, 강령탈춤 백미)을 선보인다.

이날 놀이마당과 함께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오후 1~5시)도 펼쳐진다. 사방치기, 비석치기, 제기차기, 투호, 배나, 딱지치기, 대북, 줄넘기, 널뛰기 등 무료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천원의 낭만’ 60회 록음악 밴드 ‘블랙홀’ 공연

9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행복한 문화 충전 ‘천원의 낭만’이 60회 공연을 맞았다.

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3월 공연은 한국 록음악의 자존심 ‘블랙홀’이 무대를 장식한다.

블랙홀은 한국 헤비메탈 음악의 태동기인 지난 1985년에 결성돼 지금까지 정규 앨범 8장과 베스트앨범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 특히 블랙홀은 당대에 함께 활동한 시나위, 백두산, 부활 등과 달리 단 한 번도 공백기 없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온 한국 록 음악사의 유일한 밴드이기도

하다. 현재 리더 주상균(보컬·기타)을 비롯해 정병희(베이스), 이원재(기타), 이관욱(드럼) 등 멤버들 역시 대부분 20년 이상 무대에서 호흡을 맞춘 베테랑들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해 발매한 음반 ‘Hope’ 수록곡 ‘괜찮아 일어나’, ‘진격의 광명’, ‘유니버스’, ‘라이어’, ‘E.C.I.C’, ‘더 프레스 디 프레스’와 블랙홀의 대표곡인 ‘깊은밤의 서정곡’ 등을 들려준다.

천원의 낭만 공연은 광주시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다.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보성 대원사 달마대사 벽화 등 17건 보물 지정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3일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 등 1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861호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寶城 大原寺 極樂殿 觀音菩薩·達摩大師 壁畫)’는 1767년 대법당 중장 무렵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벽화는 불전 내부 동·서 벽면에 관음보살도와 달마도를 배치한 독특한 사례로 운문사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의 계

보를 잇는 작품이다. 보물 제1862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麗水 興國寺 大雄殿 觀音菩薩 壁畫)’는 한지에 그려 벽에다 붙여 만든 접부벽화(貼付壁畵)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보물 제1863호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海南 大興寺 釋迦如來三佛坐像)’은 서산대사의 의발(衣鉢, 승려의 가사와 바리때)이 1606년 대흥사에 봉안된 후 6년이 지나 제작된 기념적인 불상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